

월남인 문제 인식의 새로운 지평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9)에 대한 서평

이우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한국 근대사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분단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하나가 한국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식민지 경험은 분단으로 이어졌으며, 분단은 한국 전쟁을 통하여 고착화되고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식민지, 분단, 전쟁은 통일의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오늘날에도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항상 현재성을 갖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한국의 근대사나 현대사의 이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사회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연결고리를 생각한다면 어느 한 사건의 연구도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에 대한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적인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분야는 불균형적이었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쟁의 원인이나 과정 등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연구나 한국전쟁에 대한 국제정치학적인 차원의 분석은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전쟁의 결과 특히 사회적 결과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영향이 남북한 양자에 커다란 영향

을 미쳤으며 북한의 극단적인 반자본주의 경향이나 남한의 레드킴플레스가 여전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전쟁이 남북한의 사회구조의 형성과 정치지형의 특성 그리고 양주민의 의식과 문화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전쟁으로 양체제의 계급구조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 등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전쟁의 결과 특히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냉전구조와 이에 따른 내부적인 차원의 이념적 폐쇄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의 결과로 공고화된 분단구조 및 대결구조하에서 정치적 권위구조를 확보한 남북한의 지도층은 역으로 그들의 권력유지의 원천이 되었던 전쟁의 사회적 결과가 규명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따라서 전쟁결과에 대한 해석권도 독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산가족 혹은 월남민에 대한 연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월남 동기는 사회주의체제 특히 김일성에 대한 반대라는 정치적 차원에서 설명되어져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월남민의 존재 자체가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고통은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공주의 성향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항상 이산가족 문제해결이 최우선과제이고 통일의 고리라고 말하면서도 월남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들이 남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 또한 남한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분단과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기초자료 부실이나 기초연구 부족이 이 문제에 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월남자의 기초통계조차 논란거리인 것이 이러한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

넓게는 한국전쟁의 사회적 영향 그리고 작게는 월남민이나 이산가족에 대한 상대적으로 척박한 토양을 고려한다면 김귀옥 박사의 「월남민의 생

황경협과 정채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서울대출판부, 1999)는 다루고 있는 주체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에 기초한 이 책은 강원도 속초와 전라북도 김제의 월남민 집단 정착촌의 월남민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월남민의 정체성을 파악한 글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월남인 정책과 정착유형으로 해방이후 전쟁기간을 거쳐 월남하여 정착하는 기간동안의 경험을 다룬 부분으로 2부와 3부를 이룬다. 두 번째는 월남이후의 정착과정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로 4부와 5부를 이룬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부는 주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월남민의 규모 및 월남민 정책의 문제 그리고 연구대상인 속초와 김제의 정착촌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필자가 3년에 걸쳐 현지를 방문하여 심층 면접한 자료를 중심으로 월남 동기나 정체성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5부에서 정착촌 월남민과 비교하고 있는 엘리트층 월남인의 문제는 기존의 연구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문제제기의 1부를 거쳐 2부에서는 월남인의 규모와 월남동기, 월남인 정책, 월남인의 분포 및 이동 과정과 유형, 그리고 속초와 김제의 정착촌 형성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3부는 정착이전 월남인의 경험과 특성을 분석한 부분으로 북한 주민으로서의 생활과 한국전쟁의 경험 그리고 난민으로서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4부는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서 정착촌의 생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세대별로 월남인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있다. 월남인 정체성을 비교하는 5부에서는 엘리트층 월남의 특성을 월남시기, 월남 동기 사회적 지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향민 의식과 정착민 의식이라는 차원에서 정착민 월남인과 엘리트층 월남인의 정체성을 비교하고 있다.

기존의 자료와 월남인 정착촌에 대한 현지 심층면접 조사 등을 통해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월남동기와 월남인의 정체성 문제이다. 월남동기

에 있어서는 필자는 기존의 통념인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월남하였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징집기피, 유엔군 점령 시의 협조경력, 철수과정에서 유엔군이 주도한 청장년 소개원칙 및 군노무자 징발, 원자탄 투하설, 유격대의 권유 등 전쟁상황에 따라 월남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월남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들이 열악한 자연조건과 행정적 지원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였다는 자긍심이 높으나, 정착촌의 낙후, 현지사회에서 고립 등 남한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지사회나 현지문화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월남인 공동체와 연결망에 대한 애착심은 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남한의 지배이념인 반공주의에 대한 헌신은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의 대상이었던 엘리트 월남인들이 남한사회에 동화되려는 노력이 높은 반면, 정착촌 주민들은 귀향의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결론 짓고 있다. 반면에 다음세대에 대한 태도는 상반되는데 정착지 월남인들은 자식들이 남한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바라는 반면 엘리트 월남인들은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동화되지만 문화적 심리적으로는 실향민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두 집단간의 차이는 월남 전후 두 집단의 사회적 지위, 월남 동기, 군복무 경력과 귀향의상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월남 1세대와 2세대간에 정체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2세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지 사회와 남한사회에 동화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말하고 있다. 정체성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결론은 속초와 김제 정착촌 집단간에 현지인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속초의 경우 전쟁전 북한지역으로 사회주의 경험등을 공유하고 있는 반면 김제는 '서북청년회' 문제, 구호물자 문제 등으로 정착민과 현지인과의 갈등이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III.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밀로부터의 월남민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월남인 이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월남동기에 관련된 것이다. 기존의 연구조사나 교과서를 비롯한 전통적 지배담론에서는 월남동기를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로서 단정하고 있었고, 최근 몇몇 조사에서 전쟁상황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김귀옥 박사는 다소 조심스러우나 후자의 입장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조사들이 질문지를 통한 양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이 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심층면접법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단체제가 엄존하고 반공주의가 여전히 팽배하고 있는 우리의 독특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념문제나 민족문제를 다루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보다 당위의 응답을 선택하는 것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심층면접을 통하여 전쟁상황설에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월남인들의 이념적 지향에 관한 것이다. 월남인들은 월남이후 강력한 반공주의적 성향을 보여왔으며, 전통적으로 보수기득권의 정치적 이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태도는 월남동기에 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역으로 월남이후 월남인들이 반공주의적 태도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북한체제에 반대하여 월남하였다 주장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조사에 따르면 월남동기에 상관없이 사회주의 지역의 출신으로 남한체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강한 반공주의를 지향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초기 북한의 개혁조치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았다는 면접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월남인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월남인이나 이산가족은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한국사회에서 일천만 이산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정확한 숫자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월남 동기, 지역과 시기 그리고 남한내 사회적 위상에 따라 사회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월남인을 엘리트층과 정착촌 주민으로 나누고 또한 각각의 세대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월남인 집단이 갖는 차별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이들은 월남인 혹은 월남인 후손이라는 공통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집단별로 사회적 성향이 다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 동안 도외시되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귀옥 박사의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는 월남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월남인의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는커녕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동안 월남인이나 이산가족의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실태조사에 중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월남과정에서 적응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과 차이가 있다.

둘째, 방법론적인 기여를 생각할 수 있다. 사회학을 포함하여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양적인 조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질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이 책은 문헌조사, 심층면접, 사례연구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유사연구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실체를 규명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념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 단순 질문지법에서는 당위적인 응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층면접 및 보완적 자료수집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세대간 연구 및 집단간 비교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월남인들의 특성을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집단별로 규명하였다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나 통일 후 사회이동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산가족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며, 이들이 어떠한 지향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에 급격하게 진행될 사회이동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귀향의사를 갖고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양적인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치를 전망하기는 어렵겠으나 이 책에서 분석한 월남민 집단별 특성은 앞으로 이산가족 해결이나 통일이후 대비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적응문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도 부분적으로 월남인들의 경험과 유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월남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탈북자들을 적응시키는 문제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이동 연구에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길게 보면 일본에 의한 강제합방이후부터 짧게 보면 해방이후 한국사회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사회이동이 극심하였다. 월남뿐 아니라 해외이주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이동의 빈도도 대단히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이동은 공동체 형성과 심리적 적응문제를 동반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 책이 월남이라는 특정한 사회이동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정서문제는 월남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타 사회이동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IV.

김귀옥 박사의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밀로부터의 월남민 연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의 있는 저서라고 할 수 있으나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질적인 방법론이 갖고 있는 본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일반화의 문제이다. 기존의 조사자료나 연구들을 폭넓게 참고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 책에서 다루는 중심은 정착촌 월남인이다. 이들이 월남인의 한 부분은 될 수는 있겠으나 표본이 될수는 없으며, 월남인 규모를 생각한다면 소수의 특수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이 정착촌에 거주하게 된 것(다른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볼 때 정착촌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급구조상의 위계를 규정한다. 따라서 논의구조는 동어반복의 오류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표성에서도 현격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사례연구법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인물 혹은 집단을 선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비교 방법의 문제이다. 이 책은 초점이 정착촌 월남민에게 맞추어 있는 까닭에 엘리트층의 경우는 직접 면접이 아닌 문헌분석을 통하여 정

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비교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자료나 방법으로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어느 조사 방법이나 오류를 포함할 수 있겠으나 서로 다른 경로로 얻은 자료는 방법의 차이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엘리트층 분석의 자료로 삼은 텍스트가 잡지 등 공적 진술인 반면, 정착민 분석의 자료인 면접(구술)은 사적인 진술인 까닭에 내용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월남동기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이다. 이 책뿐 아니라 최근의 조사들에서 월남의 동기가 그 동안 일방적으로 선전되어온 것처럼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체제요인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왔고,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 책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월남동기에서 전쟁상황설을 가장 많이 주장한 1996년 강정구의 조사에서도 사회주의 정권이 싫어서가 41.7%, 재산을 몰수당하여서가 8.3%로 체제원인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질적 방법을 중심으로 한 이 책에서는 비율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자는 과도하게 전쟁상황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월남동기에 대하여 기존의 반공주의적 단정이 문제가 있으나 이를 비판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사실을 해석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소 미진하다는 것이다. 월남인들의 정체성 파악이 기본적인 목표였다고는 하나 발견된 월남인들의 정체성이 전후 한국사회 특히 분단구조에서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하였나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하다. 월남인들이 반공주의의 첨병으로 나서게 된 동기는 어느 정도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정치적 성향이 지속되고 있는지의 여부나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나 통일 후 사회이동에서 분석된 월남인들의 정체성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 정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져도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V.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월남인이나 이산가족도 항상 이야기되어지면 서도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분석이나 연구가 없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특

히 통일이나 북한문제에서는 거대담론과 추상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귀옥 박사의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밀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가 현실성 있고, 밀도있는 연구와 분석이 활성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